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홀수형) 해설

1. 정답 5

2, 3문단에서 초인지는 점검 과정과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 동원된다고 하고 있고, 3문단에서 새로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하였으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3

[A] 8번째 줄에서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므로 3번이 적절하다.

3. 정답 1

무시했던 대상이 다시 등장 했으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4. 정답 5

1문단에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5번이 적절하다.

5. 정답 3

2문단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2

주요 후보자의 정책의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초청 받지 못하게 되면 다수 의견의 입장이 약화된다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7. 정답 2

오차범위가 8.8%이므로 다에서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 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3

3문단에서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1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다. 따라서 양 극단에 위치해 있는 값이므로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 포함 되지만, 중앙값의 경우는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므로 극단에 있는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한 1번이 적절하다.

10. 정답 5

A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L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B 기법은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은 직선이므로 이상치를 지날 수 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다.

11. 정답 2

누락되다의 뜻은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지다라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의미이다.

12. 정답 3

2문단에서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로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고 <노자>에 대해 송나라부터 원나라를 거쳐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13. 정답 1

한비자는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하여 입법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4

ㄱ의 입장은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고, ㄴ은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임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15. 정답 4

오징은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보고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 했으므로 ㄱ과 ㄴ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6. 정답 5

왕부지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17. 정답 4

어떤 내용이나 사상이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되거나 반영되다의 의미이므로 4번이 적절하다.

18. 정답 ②

[A]는 황상과 신하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황상의 대화에서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경들의 소견은 어떠하뇨?"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정서장군 한세충의 대화에서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정답 ①

황상의 대화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는 것은 맞으나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 것은 아니다.

20. 정답 ③

㉡는 황상이 김규에게 공주를 잃은 슬픔을 말하고 고명한 소견을 요청한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있다. ㉢는 아귀에게 잡혀있는 여자들이 거짓으로 기뻐하고 위로하는 말로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21. 정답 ⑤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것은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능력을 시험

한 것이 아니라 공주의 뜻에 따라 시험한 것이다.

22. 정답 ②

(가)는 푸른 색(푸른 이끼, 푸른 하늘, 푸른 싹)의 반복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이(가) 아니었으면 ~을 것이다'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

23. 정답 ①

<보기>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을,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정답 ③

[B]에서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금단의 벽)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가지가 벽의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5. 정답 ③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글쓴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㉞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26. 정답 ②

(가)의 3연을 통해 우리에게 암울한 역사적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세월 속에 닫혀 있는 ㉠'문'은 역사의 흐름 속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지'는 무명의 상태에서 담을 넘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 정답 ⑤

<보기>에서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예의와 '분수'를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정답 ①

집안에서의 집주름 영감과 늙은 마누라가 주고 받은 대화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갑득이 어미를 '상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29. 정답 ④

[A]에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양서방이 미워서 뒷간 속에다 가뒀다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은 상대방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30. 정답 ①

집주름 영감이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하구 욕지거리를 허구 그러다니....."라고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것을 두고 늙은 마누라가 '그렇쪄 그렇고 말구요~' 동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31. 정답 ②

㉠의 “ ” 부분은 갑득이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부분으로, 갑순 할머니의 의도를 자신이 추측하여 말한 것이고 서술 부분은 갑득이 어미를 초점화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갑득이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부분을 추측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한 것은 아니다.

32. 정답 ②

(가)의 ‘열두 발 쌍뚝대는 치아처럼 굽어 있고 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는 풍량을 맞은 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

33. 정답 ③

[C]에서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는 처자식들이 화자를 본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4. 정답 ④

(가)는 배에서 화자가 ‘신세’를 생각하는 것은 사행길의 복잡하고 심란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